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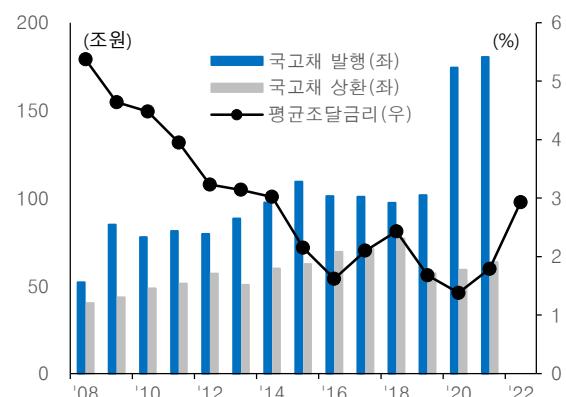
2022.5.18

현재 한국 경제환경에서 주목할 두가지

1. 추경 편성과 재정건전성

- 2022년 2차 추경 편성은 지출증액 59.4조원과 국채상환 9.0조원을 포함한 68.4조원으로, 이는 역대 최고 규모.
- 지출을 증가시키는 만큼 세입조정을 통한 세수 증가와 함께 국채상환 진행. 국가재정운용 관리 개선효과 기대.
- 지금까지의 국채증가 속도 조절 및 이에 따른 안정화를 기대. 다만 향후 대규모 추경 가능성은 제한.

지난 2년간 국고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조달금리 상승 부담으로 상환 및 관리 개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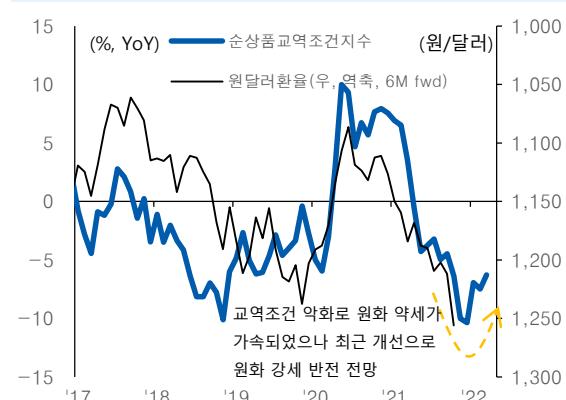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수출입물가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

- 4월 기준 수출입물가는 수출물가보다 수입물가의 진정이 확인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을 소폭 완화.
- 수출물가 상승은 최근 통관기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기제.
-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달러 유입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원화가치는 점진적인 강세 기조

수출입물가의 추이로 볼 때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개선 될 가능성. 이에 따른 원화 강세 전환 가능.



자료: 한국은행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1. 추경 편성과 재정건전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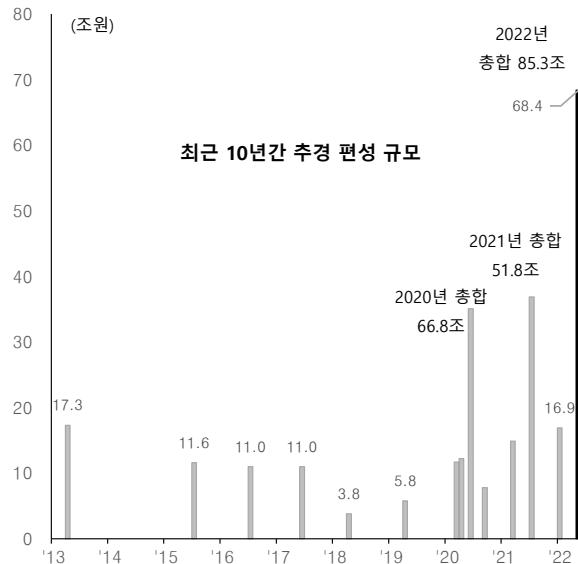
코로나19 시국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법부처 통합으로 정부에서는 2022년 2차 추가경정을 편성하면서 위기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. 지출증액 59.4조원과 국채상환 9.0조원을 포함한 68.4조원으로, 이는 역대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로써, 1차 추경을 포함하면(85.3조원) 2020년 통합 추경편성 66.8조를 크게 상회한다.

사실 추경 편성에서 지출 증가만큼 재원마련 측면에서 세입 경정도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재정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. 그러나 금번 추경에서는 장기적인 국가부채비율을 기준 대비 0.4%p 정도 개선시키는 방향을 지향한 것을 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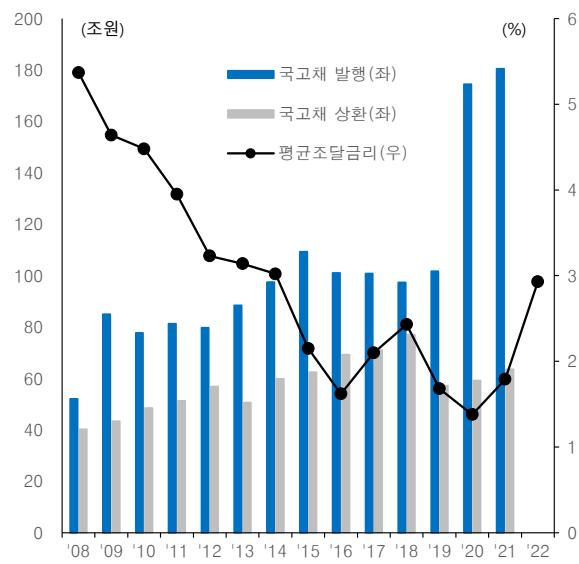
지출을 증가시키는 만큼 세입조정을 통한 세수 증가와 함께 국채상환까지 추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국가재정운용보다 조금 더 관리 차원에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특히 채무 상환 추진 노력에서의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다.

최근 국고채 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면서 정부부채의 이자부담까지 상승하는 과정에 위치하고 있다. 따라서 지금까지의 국채증가 속도 조절 및 이에 따른 안정화까지 기대된다. 다만 향후 대규모 추경 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생각된다.

[차트1] 코로나19 이후 반복적인 추경 편성으로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.



[차트2] 지난 2년간 국고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조달금리 상승 부담으로 상환 및 관리 개선 전망.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,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

2. 수출입물가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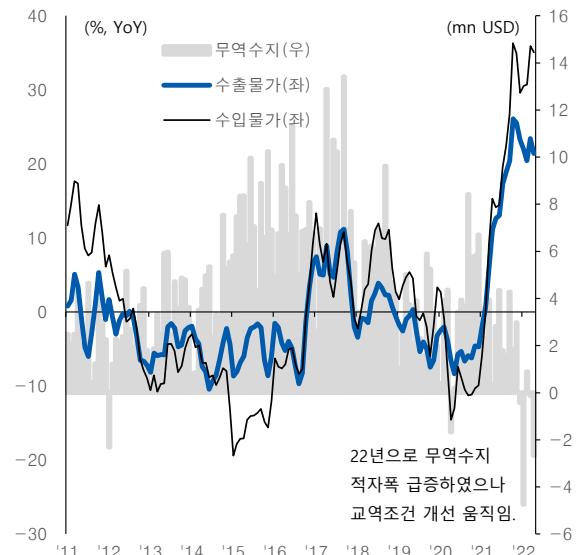
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,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물가지표 중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수출입물가이다. 4월 기준 수출입물가는 수출물가보다 수입물가의 진정이 소폭이나마 확인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을 소폭 완화시켜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

수출물가상승률은 전월비 +1.0% 상승하였지만 수입물가상승률은 전월비 -0.9%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기준 +35.0%를 기록하였다. 여전히 전년비 기준으로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조금씩 교역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.

수출입물가는 두가지 측면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. 한 국가의 대외 마진과 채산성을 의미하는 교역조건과 무역수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, 수출물가 상승은 최근 통관기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기제로 볼 수 있다.

또한 교역조건은 환율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. 최근 원달러환율이 13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였는데, 지속적 원화약세보다는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달러 유입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원화가치는 점진적인 강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
[차트3] 수출입물가의 급등 이후 완만한 하락세가 진행. 이에 따라 무역수지 역시 적자 확대보다는 진정 가능성.



자료: 한국은행,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4] 수출입물가의 추이로 볼 때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. 이에 따른 원화 강세 전환 가능.



자료: 한국은행,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